#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새국면

**법원, 도시공사가 A컨소시엄 상대 속행금지 가처분訴 이의신청 기각**
**"최고점수 우선협상대상 선정 마땅"**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가 A컨소시엄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이의신청이 29일 기각돼 박달 스마트밸리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공사가 A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속행금지(재심사 중지) 가처분소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이날 "박달 스마트밸리의 심사는 이미 완료돼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면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가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지침서 제38조 제1항에 따라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국방·군사분야 심사위원 B씨가 전투병과인 방공포병(공군) 전역자라는 이유와 도시계획분야 심사위원 C씨가 전공이 건축학이라는 이유, 환경 분야 심사위원 D씨의 전공이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이란 이유로 이 사업에 관한 심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박달 스마트밸리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절차를 중지·취소하거나 심사를 무효로 하고 재심사 공고를 한 건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또다시 법원이 A컨소시엄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돼 현재 시와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달 스마트밸리사업은 부지 310만㎡ 중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 및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약 2조5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안양=김형표·박용규 기자

## 의정부시, 추동공원 산책로 수해 유실 방치 장기화… 주민 '원성'

의정부시 도심 산지형 공원인 추동공원이 지난 8~9월 내린 비로 산책로 곳곳이 파이고 유실됐는데도 2개월 가까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민자공원으로 개발한 80만9천여㎡의 추동공원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에 걸쳐 있는 도심 산지형 공원으로 사시사철 많은 주민이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8~10일 사이 329.5㎜가 내리는 등 8~9월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동공원도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산책로 곳곳의 흙이 빗물로 씻겨 나가거나 파이면서 깊고 넓은 요철면이 생기거나 걷기 어려운 형태로 변했다. 노강 전망대 밑 약수터서 골프연습장 방향과 생활체육시설(화장실) 방향의 야외학습장 주변이 특히 심하다. 야외학습장 산책로는 아예 물길이 돼 깊게 파였다. 신곡 배드민턴장에서 우리 꽃 암석원으로 가는 산책로도 곳곳이 토사가 휩쓸려 나갔다. 생태통로에서 노강 전망대로 가는 산책로나 화장실서 도당화원으로 내려가는 통나무 계단길 등의 일부 계단 흙이 유실되면서 발을 디디기가 어렵고 자칫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

같은 비 피해를 입은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등지의 천변 산책로나 자전거길은 응급 복구했으나 이곳은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주민 A씨(55)는 "눈에 보이는 중랑천 산책로 등은 즉시 복구하고 조치하면서 추동공원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시가 한 번만 둘러봤어도 이같이 버려두진 않았을 것이다. 공원을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추동공원의 비 피해 현장을 파악하고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대회기간 |
2022. 10. 15 (토) ~ 10. 19 (수) 5일간
| 장소 |
물맑은 양평체육관
| 접수기간 |
2022. 9. 19 (월) ~ 9. 30 (금)
대회참가 등록기간까지 준회원 가입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A리그 ( 겨루기/품새, 자유품새 ) : http://reg.koreataekwondo.co.kr.
– B리그 ( 겨루기/품새 ) : http://taekwonbox.com.
| 접수문의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사무국
Tel. 02-3432-8861~2
주최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KETF 기호일보
주관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KETF 경기도태권도협회 양평군태권도협회
승인 | 대한태권도협회 KTA
후원 | 양평군 양평군체육회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개막** 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 "기록문화센터 건립 누구 맘대로?"

민원현장

**남양주시, 다산동에 신축 계획 알려지자**
**주민들 "아파트 밀집지역에 웬말" 반발**

가칭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다산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는 사업비 256억원을 들여 공공청사 2부지인 다산동 6018번지에 설립이 예정됐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은 5천500㎡에 달한다.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는 문화유산과 시정정보자원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또 현 남양주시 기록관의 보존공간 수용력이 99%를 넘으면서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주민들은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인 만큼 시청 근처나 다른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문서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굳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것도 신도시 한복판에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을 짓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기록문화센터라고 하지만 설계도면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해당 부지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 주민 4천106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7월 주광덕 시장과 김현택 시의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통해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온전히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관 또는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시설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건립 계획을 수립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받고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현재 건립 추진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광덕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편의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 안산시, 리조트 매입 '급급'… 시의회에 '불법 쉬쉬'

**농지 훼손·진입로 문제 미설명 드러나**

안산시가 다가구주택(리조트)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농지가 불법 훼손됐는데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리조트 소유권을 이전해 논란(본보 2월 24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개인 소유 리조트와 토지 16필지 등을 38억9천여만원(탁상감정가)에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리조트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건축면적 355㎡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리조트는 단지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는 연못,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 3천640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천㎡ 이상에 3만㎡ 미만 부지를 개발할 경우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해당 리조트는 진입로 너비가 3~4m밖에 안돼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같은 시기 공유재산 취득 관련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농지 불법 훼손 및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리조트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옥순 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리조트를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진입로가 좁아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따졌다.

특히 시는 불법 훼손된 농지를 원상 복구한 뒤 매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는 해당 리조트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 동두천 장애인 '바른 식생활' 안내
## '삼시세끼 건강페스티벌' 오늘 열려

동두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른 식생활 개선 '삼시세끼 건강페스티벌'이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두천장애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동두천시지부가 주관한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전문기관과 연계해 전문 강사를 통한 효율적인 식생활교육이 진행된다.

강사들은 암,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장애인들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이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입증된 과학적 관련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식생활방식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자 전원 균형식사체험(도시락)을 통해 식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질병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두천 장애인부모회(댄스스포츠팀)의 식생활캠페인송과 장애인들로 구성된 경우악단 무대도 준비된다.

최봉선 경기도장애인복지회장은 "교육생들이 가정에서도 바른식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등 개별 피드백 지원과 함께 만족도 조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